

성공적인 정책은 세(勢)와 시(時)를 필요로 함. 현재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한미 중 간의 협력 필요성'이라는 세가 형성되었음

한미중 회의가 개최되면 북한과의 대화 조건 및 비핵화 단계, 그리고 북한의 비협조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3. 한미중 3국의 북핵 문제에 관한 입장

- 한미중 3국은 북핵 문제에 관한 상당한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공통점이 3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임.
 - 북핵 문제가 안보이익 침해는 물론이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제 인식
 - 북핵 문제의 최종상황으로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지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강화 등
- 다만, 한미중 3국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이 3국 협력의 동인이 될 것임.
 - 첫째, 대화의 재개 조건임. 미국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중국의 경우 대화에 전제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
 - 둘째, 북한과의 초기 합의 조건임. 미국 정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미국 내 학자들간에 동결협상(freezing deal)과 관련한 주장만 제기될 뿐임. 반면 중국의 경우 쌍궤론과 쌍중단론을 제시 중
 - 셋째,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구체적 보상의 내용임. 북한은 핵무기 완성 단계에 있는 만큼 더 큰 보상을 원할 것이 분명하나, 미국과 중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보상해야 할지 구체적 고민이 걸려
 - 넷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비핵화 추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중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불안정의 한 원인으로 보는 만큼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정
- 한국의 신정부는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다양한 차원의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임.
 - 대화의 재개 조건, 북한과의 합의 조건, 대북 지원 내역 등에 있어 한국의 신정부는 상당한 유연성 보유
 - 이러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각 사안별로 미국과 공조한 이후 중국과 협력하는 실질적 기여가 가능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재개는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전망

4. 고려할 점

- 성공적인 정책은 세(勢)와 시(時)를 필요로 함. 현재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한미중 간의 협력 필요성'이라는 세가 형성되었음.
 - 문제는 어느 시기에 한미중 협력을 제안해야 할 것 인가임. 6월 말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종료
 - 다음 기회는 7월 G20을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임. 동 회담을 계기로 한미중 회의의 필요성을 중국측에 설득해야 함. 이 과정에서 한미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국의 한미중 회의 제안은 중국을 설득해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
- 북한의 비핵화 대화 거부 입장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쉽게 제기되는 동결 제안조차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한미중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 놓아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비핵화 대화는 진전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이후 대화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
 -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어 대화에 복귀 해도 어느 정도 압박이 완화 되면 다시 핵무기 개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존재 (과거의 협상 전례)
 - 동결로부터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세부 신고 및 검증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대북 지원 등과 맞물려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
 - 따라서 한미중 회의가 개최되면 북한과의 대화 조건 및 비핵화 단계, 그리고 북한의 비협조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7. 06. 30 <제20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한미중 협력 방안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정책 제언

한미중 협력 방향

(1)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 시 '한미중 협력' 합의 추진

- 한미중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합의로 공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힘이 실려야 실무선에서 대화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
 - 한국과 미국은 사전 협조를 통해 중국과의 3자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조율한다는 원칙에 공감 필요

(2) 조속한 시기에 한미중 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조율

-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을 조율하는 데 한미중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이하 예시)
 - 탐색적 대화(exploratory dialogue)로써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
 - 북한에 제공할 한미일 공통의 조건을 발전. 병행론은 수용 가능하며, 쌍중단론은 그대로 수용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의 연합훈련 축소로 시작 (이 점은 한미 양국간 대화로서 사전에 조율해야 할 필요)
 - 이후 북한의 성의있는 비핵화 약속 이행에 따라 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될 수도 있음은 시사 가능
 -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면 동결로부터 시작되는 비핵화 전반에 합의하고, 북한이 원하는 안보/경제 이익을 제공하는 본격 협상 개시
 - 본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동결 → 신고 → 검증 → 불능화 → 비핵화' 제 단계에 상응하는 조치에 맞물려 한미중 및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경제 이익을 행동 대 행동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
 - 회담의 틀은 6자회담이 가장 바람직하나,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보다 유연한 접근도 가능
 -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지 않거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되 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추진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면 동결로부터 시작되는 비핵화 전반에 합의하고, 북한이 원하는 안보/경제 이익을 제공하는 본격 협상 개시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함. 중국의 국익은 한국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역내 존재에 위협을 느낌. 이 점을 이해해야 창조적인 협력이 가능

-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한미중 협력의 성공을 위해 각국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함. 중국의 국익은 한국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역내 존재에 위협을 느낌. 이 점을 이해해야 창조적인 협력이 가능
 -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해서는 안 됨.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있어 소중한 안보이익임을 이해해야 함. 평화가 정착되면 긴장이 완화되고 그 속에서 중국의 국익을 자연스럽게 실현 가능함을 이해 필요
 - 따라서 한미중 3국은 다른 전략적 계산이 아닌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3국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는 문제인식이 필요

(3) 북핵 문제 외에도 사드(THAAD) 문제 등 3국의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

- 사드 문제의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중국의 대한민국 경제 압박을 해소
 - 한미중 회의 틀 내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략적 이해 훼손'의 내용을 밝히고, 한미 양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
 - 한미 양국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북핵 문제 해소 시 사드의 철수를 약속
 - 단순히 사드 문제의 해결을 넘어 한미중의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
- 한미중 3국 협력 성공 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을 도모
 - 현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핵심 장애물은 미중간의 불신임. 만일 한미중 협력을 통해 미중 양국이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간다면 역내 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 가능

내용 분석

한미중 협력을 꺼리는 중국의 입장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을 활용하려 한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미중 협력을 가정할 때, 한중 협력을 통한 미국의 변화 견인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중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

1. 한미중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현황

- 미중관계는 21세기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발전해 옴.
 - 동북아에서도 미중 양국은 냉전기에서부터 양대 세력을 형성하며 세력균형을 전개 중임
-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주된 역할을 맡고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음.
 - 4월 초 미중정상회담, 그리고 6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외교전략대화에서 다루어진 핵심 내용이 북한 핵문제
 - 미중 양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부 추진 전략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비핵화 평화회담 병행론 (쌍궤론),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 요구 (쌍중단론) 등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대적 압박 요구는 중국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중 협력을 추진해 옴.
 -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문제의 열쇠를 지닌 미중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 옴
 - 중국은 북한이 배제된 한미중 협력은 오히려 북한을 더욱 고립되게 한다는 이유에서 협력 참여를 주저해 옴
 - 그 결과 민간 차원에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임
- 한미중 협력을 꺼리는 중국의 입장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을 활용하려 한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북한을 무너뜨리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등장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많은 이해를 공유
 - 한미중 협력을 가정할 때, 한중 협력을 통한 미국의 변화 견인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중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
 - 한미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착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한미중 협력 방안을 제시

2.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한미중 협력

-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요체는 평화체제 구축이며, 비핵화의 추진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목표임.
 - 북한 핵 위협 고조에 따른 자주적 국방력 건설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함
 -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인식 또한 중국의 입장과 상호 조화로운 측면이 다수 존재함
 - 한중관계 역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양자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참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공약

- 3대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4대 원칙: 책임, 협력, 평화, 민주
- 5대 이행방법
 -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지난 정부들에 비해 한미중 3국 협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그 이유 또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지난 수년간의 노력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미중 협력에 대한 기대가 낮을 가능성이 존재
 - 중국의 입장과 유사하게 북한을 배제한 한미중 협력은 오히려 북한을 더욱 소외시킬 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북핵정책을 고려할 경우, 한미중 협력을 통해 3국이 공통의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여전히 한국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
 - 이러한 한국의 입장이 순기능을 할 경우 '미중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 한편, 중국측은 한국의 튼튼한 한미동맹 유지가 기회 요인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함. 미중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임.
 - 전통적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한국의 위협이자 미국의 위협이라는 '위협인식'을 공유
 - 북한 위협인식 및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미간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옴
 - 만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잘 조율해 낼 수 있다면,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한미중 모두의 이익으로 귀결
-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중국이 한미중 회의를 피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 조건 조율을 위한 한미중 협력에 적극 임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측이 늘 밝혀 왔듯이 '정세의 변화에 부합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

만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잘 조율해 낼 수 있다면,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한미중 모두의 이익으로 귀결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중국이 한미중 회의를 피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 조건 조율을 위한 한미중 협력에 적극 임하는 것이 필요함.